

서기 2000년, 일본의 돈육시장 전망

- 홍 보 부 -

1987년 일본의 돼지고기는 전 식육소비량의 40.8%에 달했다(닭고기 35.1%, 쇠고기 20.8%, 양고기 3.3%). 따라서 돼지고기는 의젓하게도 최대로 소비되는 고기가 되었다.

그러나, 소비량은 증가되었으나, 급속도로 발전하는 쇠고기나 닭고기에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. 소비량의 약 85%는 국내에서 자급하고 15%를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, 과거 2년간의 수입률은 급증해 왔다.

○ 양 돈

양돈의 최대 지역은 관동지방과 남규슈 등 일본 남부에서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. 수년내에 공해와 지역적 규제때문에 경영자는 축사를 도심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.

동 산업내에서의 대규모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

〈표1〉 일본의 돈육결산표 (1987-2000년)

(단위 : 천톤)

구 분	1987년	2000년	차 (%)
생 산 량	1,590	1,985	24.8
+ 수 입	398	600	50.8
- 수 출	44	0	-
= 소 비 량	1,944	2,585	33.0
1 인 당 소 비 량 (kg)	15.9	19.4	22.0
자 급 자 족 율 (%)	81.8	76.8	-

1975년 1개 농장당 평균 겨우 34두였던 사육두수가 1987년 초기에는 65,100 농장에서 1천1백35만두의 돼지를 출하해냈다. 바꾸어 말하면, 1개 농장당 1백74두를 출하한 셈이다. 대농장(6.6%)이 총생산의 53.5%를 점하고 있다.

대부분의 농장은 수입한 곡물과 대두로 상품화한 배합사료에 의존해 오고 있다. 1976년부터 1980년 사이에 돼지고기 생산은 급증했으나, 2000년까지는 24.8%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(표1).

○ 육가공

돼지고기 가공의 증가가 돼

지고기 소비량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. 1986년에 가공용 돼지고기는 총 돈육소비량의 27.2%였다(1977년에는 22.4%).

가공용 돼지고기의 약 40%가 수입품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소세지(특히 원나소세지)와 햄, 베이컨 등이다. 이들 제품은 요사이 몇 년간 판매가 증대되어 왔으며, 특고급 돼지고기 제품은 현저하게 신장되었다.

① 순돈육 소세지의 생산고는 1985년부터 1986년까지 77% 증가했다.

② 혼육(混肉)제품은 20% 감소했다.

확실한 경향은 말고기, 양고기의 소비 감소와 돼지고기, 닭

특집 / 서기 2,000년, 세계의 돈육시장 어떻게 변할 것인가?

고기 소비의 증가이다. 총가공육내에서 돼지고기의 점유율은 1985년에는 75%였으나 1987년에는 80%였다.

○ 소비

과거 20~30년간 일본인의 식생활은 기본적으로 크게 변해 왔다. 그것은 일본인의 식육 소비량이 계속 급증해 오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. 1960년에는 식육 소비량이 1인당 5kg이었으나 1986년에는 26.2kg으로 상승했다.

이러한 상승과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식육 소비량은 서구에 비해 아직도 떨어져 어디를 보나 그 증가추세는 지속될 징후가 있다.

전형적 일본 요리에 드는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은 어패류이다. 생선의 가격은 고기의 가격에 비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. GIRA의 예상에 따르면,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어 결과적으로 2000년까지는 생선의 소비량은 현상유지에서 다소 감소될 것 같다.

일반적인 예상은 정치, 정책에 좌우되며 현재는 무역자유화의 경향에 있다. 소비자는 식육의 자유무역화로 꽤 도움을 받으나, 수입쇠고기의 규제로 일본시장의 쇠고기는 인위적으로 비싸게 되어 다른 식육업자

는 높은 가격이라도 현재의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다.

이것은 차제에 변화되어 올 것이며 반드시 치열한 시장 경쟁탈전이 전개되어 소매가격은 오히려 내리게 될 것이다.

일본의 소비자는 식육에 많은 돈을 지불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. 낮은 가격은 환영하지만 고품질 제품의 시장 발전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.

1980년~1985년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대체로 일정한 상태였으나, 1986년~1987년에는 낮은 가격때문인지 소비가 증가했다. 보다 많은 돼지고기가 가공용과 외식용에 사용되는 경향이 지속되도록 생각해 온 것은 보다 고품질의 가공돈육에의 요구와 순돈육 가공제품에의 강한 요구에 의한 것이다.

외식부문은 급증하고 있으나, 그 부문에서는 쇠고기와 닭고기에 비해서 돼지고기는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는다. GIRA의 생각으로는 돼지고기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지만, 연간 약 1.5% 정도로 보고 있다.

1987년의 1인당 소비량은 15.9kg이었으나 2000년에는 19.4kg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요는 고품질의 돼지고기가 최고가 되어 보다 저지방분의

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경향으로 되어가고 있다.

○ 국제 무역

돼지고기의 생산증가에도 변함없이 소비량은 공급을 넘어서서 수입량이 1966년의 70톤에서 1987년에는 28만톤으로 증가되었다. 무역은 골발육(Boneless Cuts)이 기본이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 뼈붙은 고기와 부스러기 고기 정도이다.

골발육의 50%는 로인과 텐더로인이다. 1985년 kg당 650엔에서 1988년~1989년 회계년도에는 kg당 495엔으로 급락하므로 수입이 급증했다.

앞으로의 무역은 대부분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.

① 가격수준의 안정화 : 가격수준이 낮게 안정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수입축진이 계속되게 된다.

② 소세지·햄 등의 가공제품은 엄격하게 수입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.

이들의 규제가 완화되면 가공제품의 수입량은 급증하게 된다. 전면적인 변화도 늦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점점 수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, GIRA는 2000년에 60만톤(전 공급량의 23%)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(표1). 